

Jump to a section in this newsletter:

[Introduction](#) | [Featured Artist/Org](#) | [Deadlines](#) | [Headlines](#) | [Artist Learning](#) |

[Mentoring Alumni Corner](#) | [Helpful Tips](#) | [IAP in Translation](#)



Miru Kim, MOI, 2011 (From the series *The Pig That Therefore I Am*).
Photo courtesy of Miru Kim.

Featured Artist

This month's featured artist is Miru Kim, a New York based artist. The interview is conducted by IAP intern, Hyeyoung Kim. This is also available in Korean, please click [here](#).

The above English version of the interview is translated from the Korean version below by Hyeyoung Kim.

김미루는 뉴욕을 베이스로 활동하는 작가이다. 그녀는 버려진 공장이나 터널, 지하철 역 같은 폐허를 찾아다니는 자신을 도시 탐험가 (urban explorer)라고 표현한다. 작가는 이 탐험을 *나도의 우수(Naked City Spleen)*라는 시리즈를 통해 카메라에 담아내고 있다. 돌아오는 3월 24일 김미루는 **두산갤러리 뉴욕** 개인전에서 *The Pig That Therefore I Am*이라는 새로운 시리즈를 선보일 계획이다. 작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려면 여기를 [클릭](#).

IAP: 김미루 작가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자란 후 학생 때 다시 미국으로 유학을 왔다고 들었어요. 이 환경 변화가 작가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나요? 작가는 본인의 한국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MK: 맞아요. 저는 한국에서 자랐고 13세에 미국에 다시 돌아왔어요. 유학을 오면서 성격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어렸을 때 장난도 많이 치고 개구쟁이였는데 아무래도 언어가 처음에 통하지 않으니 성격이 내성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비록 미국에서 13세부터 생활해왔지만 저는 불교나 도교같은 동양 사상이나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작업한 시리즈에서도 동양 사상의 영향이 크다는 걸 아실 수 있을거예요.

IAP: 원래 의사가 되려고 의대에 진학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왜 갑자기 작가가 되기로 결심하셨나요?

MK: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미술을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때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항상 칭찬 받았던 기억이나요.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게 된 건 동물때문이에요. 저는 동물을 매우 좋아해서 아무래도 그걸 그리고 싶어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대학 졸업 후 의대에 진학했는데 제가 진짜 원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진로를 고민하던 중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미술을 전공하기로 결심했어요. 프랫에서 대학원과정으로 페인팅을 전공했고, 그 때는 사진작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되는 크리틱 세션 중 자꾸 회의가 들었다고 할까... 교수 중 한 명이 그림에 대한 의욕을 많이 떨어지게 했던 것 같아요. 그쯤 친구들과 버려진 터널같은 장소들을 찾아다니며 사진을 남기고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Naked City Spleen*과 같은 시리즈로 작업이 이루어졌어요. 원래부터 사진작가가 되려고 계획한 것은 아니었고, 자연스럽게 사진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학부 때는 불어불문학을 전공했는데 프랑스 시인 샤를 보들레르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Naked City Spleen* 같은 경우는 제목에서도 그렇고, 그의 영향을 받기도 했어요.

IAP: 결보기엔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시는 것 같은데 작업을 할 땐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고 정열적으로 변하시나요?

MK: 작업할 때와 평소 모습이 그렇게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모험심이 원래 강해서 아마도 그 것이 작품의원동력이 되는게 아닐까 싶어요.

IAP: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nude 작업을 한다는 것이 상상이 안가요. 아무래도 서양보다는 굉장히 보수적이니까요. 어떤 허가같은 것을 받으셨나요? 혹은 작업 중에 별일 없으셨어요?

MK: 저도 사실 좀 걱정이 되어서 일부러 공사장 인부들이 출근하기 전 이른 아침 시간에 철거촌에 갔어요. 작업을 거의 마무리 하고 있을 때 인부들이 오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특별한 문제는 없었어요. 지붕위에 올라가서 앉아있는 포즈를 취하고 있었는데 순간 그분들이 나를 보면서 철거를 반대하다가 미쳐버려 혼자 시위를 하는 사람으로 착각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보다는 오히려 이슬람권에서 가장 무서웠어요. 실제로 시큐리티가 뭐라고 해서 좀 위험하다고 느꼈어요. 아마도 무슬림 국가라서 공공장소에서 여자가 나체로 있는 것이 금기시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IAP: 한국에서 철거촌을 배경으로 선택한 이유는 뭔가요?

MK: 한국에서는 버려진 공장을 찾기가 힘들었어요. 아마도 사람들이 재빨리 새로 건물을 짓고 뉴타운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일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철거촌을 찾기가 더 쉬워요. 철거촌은 현재 도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IAP: 3월에 두산갤러리에서 열릴 개인전에서는 동물을 주제로 새로운 시리즈를 선보인다고 들었어요. 새 시리즈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MK: 다음 개인전에서 새롭게 선보일 시리즈는 돼지를 메인 주제로 다루고 있어요. 의대 재학 중 해부학 수업을 들으면서 돼지와 사람의 장기가 생물학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대개 돼지를 더럽고 게으른 동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피부가 실제로 사람 피부에 이식이 적합한 물질이라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피부는 내부의 감각과 외부 환경이 결합할 수 있는 완벽한 매개체라고 생각해요. 신체적으로 봤을 때 피부는 몸의 안과 밖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서양에서는 흔히 영혼과 육체가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보지만 동양문화권에서는 이들이 동시에, 그리고 같은 곳에 존재한다고 믿어요. 대표적으로 불교와 도교에서는 인간 뿐아니라 동물도 그들만의 영혼과 에너지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이런 의미에서 제 피부가 돼지의 피부와 신체적으로 접촉한다는 것은 곧 두 육체와 영혼이 만나 서로 교감하고 소통하는 행위와 같아요. 2010년 폴란드에서 열린 Fokus Łódź 비엔날레에서 저는 실제 돼지우리에 있는 진흙을 가져다가 퍼포먼스를 했어요. 흙이라는 소재 또한 돼지와 인간의 공통점을 표현하기 위한 소재 중 하나였어요. 동양철학에서 흙은 흔히 무리가 (동물과 사람 모두) 세상으로 오게 하는 곳, 사는 곳, 그리고 생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는 곳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작가노트 "The Pig That Therefore I Am"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

IAP: "Naked Art City"라는 예술 단체를 운영한 걸로 알고있는데 그 것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MK: 제가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 옥상에 이벤트 스페이스가 있어요. 그 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파티를 하면서 뉴욕에 있는 작가들을 프로모션 하고 싶다는 생각에 시작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옥션을 두 번 열었어요. 현재는 제 일이 바빠서 아무 계획이 없어요. 이벤트를 계획하고 예술 단체를 운영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미술을 워낙 좋아해서 작품 컬렉팅에도 관심이 많고, 실제로 신진작가나 학생작가 위주로 컬렉팅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뉴욕에 있는 작가들은 경쟁이 심하고 당장 살기가 힘들어서 작가들끼리 서로 모이고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힘들어졌어요. 예전에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다운타운이 예술하기 참 좋은 환경이었고, 보헤미안적인 분위기도 많이 살았어서 작가가 많이 모여 살았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작가들에게는 렌트도 공짜였던 그런 환경이었는데 너무 아쉬워요. 그런 혜택이 많이 사라지니 서로 다들 힘들어졌죠. 작가들끼리 작품 교환이나 트레이딩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도 다른 작가들과 많이 교류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지만 뉴욕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바쁘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힘들더라고요.

IAP: 작업에 영감을 주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MK: 아마도 작가들과의 교류도 영감을 주고요. 저는 원래 클래식을 좋아해요. 책, 미술, 음악, 오페라같은 것들이요. 저희 언니가 고대 미술사와 고고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클래식을 많이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미술관도 많이 다녔고 미술사 공부도 좀 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인상이나 작가의 삶을 매우 좋아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표현주의 쪽으로 더 관심이요. 좋아하는 작가가 몇 있는데 E. Greco, Egon Schiele 같은 Vienna Succession 작가들을 꼽을 수 있어요. 요즘은 Gustave Moreau에 푹 빠져있어요.

IAP: 뉴욕에 수많은 외국인 작가들이 있어요. 뉴욕 화단에서 성공하고 싶어하는 작가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MK: 우선, 공부를 많이 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실력을 쌓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뉴욕이라는 도시는 경쟁이 심한 환경이기 때문에 혼자 스튜디오에 쳐박혀서 작업만 한다면 화단에서 살아남기 힘들어요. 저는 성격이 원래 굉장히 내성적이었는데 뉴욕에 와서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제가 억지로 노력해서 사람들도 많이 만나려 하고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해요. 소셜 네트워킹은 특히 뉴욕에서 좋은 작가로 살아남기 위한 중요한 과정 중 하나라고 해요. 소셜 네트워킹은 특히 뉴욕에서 좋은 작가로 살아남기 위한 중요한 과정 중 하나라고 해요. 이 뿐 아니라 작업을 즐기면서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실력이나 지식이 없으면 그저 즐기만 하는 것은 안돼요. 실력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알아차리거든요. 자꾸 갤러리에 방문해서 다른 작품들을 보면서 공부도하고 자기 계발을 계속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언어 능력과 작문 실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대학에서 불어불문학을 전공했고 글쓰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작업에 관련된 것이든 아니든 글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글을 쓴다는 자신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 중 하나이므로 미술 작가들도 당연히 글을 잘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뉴욕에 작가들이 매우 많은데 그 중 글도 잘쓰고 그 표현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